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7(1); 24~33; April 2014
ORIGINAL ARTICLE

print ISSN: 2005-5668
online ISSN: 2289-0386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과의 관계연구

진정환 · 이석희*
부산교육대학교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s and Social Adaptability of Gifted and General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Jin Jeong-hwan · Lee Seok-hee*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screte intelligences from multiple intelligence affecting the social adaptive behavior, help to understand their relation and draw educational implications to be used in supporting gifted students who have soci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 and social adaptive behavior of gifted and general elementary studen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s of both multiple intelligence and social adaptive behavio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ifted elementary students compared to general ones on all sub-factores, indicating that the gifted elementary students are more adaptive in such constructs as self-efficacy, self-esteem, communicative skill, school life and interpersonal skill compared to general ones. Second, the association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 and social adaptive behavio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in gifted and general elementary students, indicating that the two constructs have close relation with each other. Third, for the gifted elementary students, the logical-mathematical and interpersonal intelligences had explanatory powers for self-efficacy, self-esteem, communicative skill, adaptation in school life, interpersonal skill while, for the general ones, intra- and inter-personal intelligences had explanatory powers for most domains of social adaptive behaviors, indicating that development of intelligences affecting the social adaptive behavior many have positive effects o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both gifted and general elementary students.

Key words : multiple intelligence, social adaptive behavior, gifted students

Ⅰ. 서 론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난 십여 년간 양적인 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이러한 양적 발전 뒤에는 지나친 성과 중심의 인지적 발달만을 강조하는 속진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영재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서적인 발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배치한 외, 2013). 그로 인해 많은 영재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또래 집단 내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영재들의 뛰어난 재능에 따른 특별대우로 인한 일반학급에서 영재들의 인지적 우월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반학생들의 태도, 일반학생들이 영재들의 영재성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여 또래집단 내에서 하게 되는 비현실적인 기대, 영재들의 우수한 능력에 대해 질투·분노·노골적인 적대감 형성이 있다(김지혜, 2002; Davis & Rimm, 2004). 이러한 현상은 영재교육에 있

Received 17 March, 2014; **Revised** 19 April, 2014; **Accepted** 29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 Lee Seok Hee, Busan National Univ. of Edu. 24, Gyodae-ro, Yeonje-gu, Busan, 611-736, Korea
Phone: +82-51-500-7243
E-mail: seok@knue.ac.kr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14"

ⓒ 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s Education .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취영재아(gifted underachiever) 문제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서우경, 2003).

영재들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회·정서적 영역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비동시성 발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비동시성 발달(asynchrony)이란 영재의 발달 특성 중 하나로, 영재의 높은 인지적인 요소와 달리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은 그렇지 못함에서 오는 불균형을 말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영재의 사례를 보면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윤여홍, 2000).

이와 같은 영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이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적용 등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영재심리상담의 경우에는 영재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기반으로,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룬다. 심리상담에서 다루는 문제들로는 영재의 의미와 자아정체감, 영재로서 장점과 단점,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동기 및 무력감, 영재의 성격, 주의집중 및 행동, 학업부진과 열등감, 긴장과 경쟁, 지루한 학교생활, 사회성 부족 및 대인관계, 놀림과 따돌림, 완벽주의와 지나친 자기비판, 성취 기대에 따른 압박감과 스트레스, 도덕발달, 리더십 등이 있다(박성익 외, 2003).

이러한 문제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자신 내면의 문제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영재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능의 개념으로는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Gardner(1983)는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하면서 신경생물학과 두뇌연구와 문화인류학을 근거로 그동안 재능이라고 불리던 인간의 다양한 측면까지 포함한 일곱 가지 지능을 주장했다. 다중지능에서의 개인이해지능은 정의적인 측면을 개발할 수 있는 지능으로, 서로 협동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개인적으로는 자기 이해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지능이다. 신영미(2012)의 연구에서는 다중지능별 독서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김미진(200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8가지 다중지능 영역은 4가지 사회성 영역(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숙정(2000)의 연구에서는 일반학생들의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다중지능 구성요소별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친사회적 행동점수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을 비교·분석하여,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그 설명력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지능의 각 영역과 그 관계에 대해 이해를 돕고, 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재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이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은 사회적 적응행동에 대하여 설명력이 있는가?

Ⅱ.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자기 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의사소통능력, 학교생활 적응력, 대인관계 친화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대상, 연구절차, 검사도구, 자료 처리 및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으로 연구대상을 분류하였다. 초등영재는 경남 H교육지원청 영재교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udy

		Gifted	General	Total
Fifth	Male	18	0	18
	Female	18	0	18
Sixth	Male	26	43	69
	Female	10	52	62
Total		72	43	105

육원 수학 · 과학영재 35명, 발명영재 19명과 C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발명영재 1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학생은 H교육지원청 C초등학교 6학년 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H교육지원청의 경우 수학과 과학 영역을 통합하여 수학과학반으로 운영하며, 발명영재학생과 함께 초등영재로 지칭하였다.

2. 검사도구

1) 다중지능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Shearer(1995)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MI 발달 평가 척도(multiple intelligences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 MIDAS)와 자연지능 문항이 포함된 K-MIDAS(김현진, 1998)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음악, 신체-운동, 논리-수학, 공간, 언어, 대인관계, 자기이해, 자연 지능의 8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5단계 Likert 척도 형식의 총 80문항으로, 각 진술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는 1점, '아닌 편이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런 편이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중지능 검사의 영역별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87～.92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79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사회적 적응행동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적응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박정희(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 성숙도 검사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 적응행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6문항, 사회적 유능감 7문항, 의사소통능력 7문항, 학교생활적응력 8문항, 대인관계 친화력 10문항 등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단계 Likert 척도 형식으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는 1점, '아닌 편이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런 편이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행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적응행동 검사의 영역별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91～.96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76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통계 처리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PASW Statistics)18.0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집단 간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지능이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초등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비교

1)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 차이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이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지능의 모든 지능에서 초등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초등영재는 논리-수학지능의 평균이 4.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언어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자연지능 순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지능의 평균이 3.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류성림(2004)의 초등수학영재의 다중지능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수학영재들은 다중지능 가운데 자기이해지능, 논리수학지능, 대인지능이 높았고 신체운동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낮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논리-수학지능의 경우 표준편차가 0.55로 다른 지능의 표준편차와 비교해 가장 낮았고, 지능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악지능(M=3.71), 자연지능(M=3.88), 공간지능(M=3.93)은 표준편차가 각각 0.92, 0.77, 0.80으로 다른 지능의 표준편차와 비교해 높은 편이였다.

일반학생은 개인이해지능의 평균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인관계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Table 2. Gifted and General's multiple intelligences analysis

Factor	Group	M	SD	*t*	*p*
Musical	Gifted General	3.71 3.22	0.92 0.77	3.775	.000**
Bodily-kinesthetic	Gifted General	4.00 3.24	0.80 0.79	6.178	.000**
Logical-Mathematical	Gifted General	4.36 3.42	0.55 0.66	9.757	.000**
Spatial	Gifted General	3.93 3.16	0.80 0.76	6.410	.000**
Linguistic	Gifted General	4.16 3.48	0.68 0.71	6.181	.000**
Interpersonal	Gifted General	4.34 3.56	0.62 0.66	7.792	.000**
Intrapersonal	Gifted General	4.29 3.61	0.64 0.73	6.270	.000**
Naturalist	Gifted General	3.88 2.95	0.77 0.82	7.442	.0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지능의 평균이 2.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주연(2009)의 연구에서는 신체-운동지능, 언어지능, 자연지능, 대인관계지능, 공간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자기이해지능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논문의 결과에서도 일반학생의 다중지능의 발달 순서 정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중지능은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집단 내, 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사회적 적응행동 차이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사회적 적응행동이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3와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적응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초등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초등영재는 학교생활 적응력의 평균이 4.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유능감, 자기 효능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친화력의 평균이 4.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학생은 의사소통능력의 평균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사회적 유능감, 자기 효능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친화력의 평균이 3.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행동 중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차이가 많은 영역은 대인관계 친화력으로 초등영재가

Table 3. Gifted and General's social adaptive behavior analysis

Factor	Group	M	SD	*t*	*p*
Self efficacy	Gifted General	4.23 3.31	0.91 0.80	6.944	.000**
Social competence	Gifted General	4.24 3.36	0.70 0.76	7.675	.000**
Communication	Gifted General	4.26 3.61	0.75 0.68	5.863	.000**
School adjustability	Gifted General	4.40 3.57	0.71 0.76	7.185	.000**
Interpersonal affinity	Gifted General	4.17 3.15	0.71 0.77	8.729	.000**

일반학생에 비해 1.02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가 적은 영역은 의사소통능력으로 초등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0.65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초등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자기 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의사소통능력, 학교생활 적응력, 대인관계 친화력 등에서 더 높은 적응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규 외(2005)의 연구에서 영재들은 탁월한 인지적 특성과 건강한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특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2.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관계

1)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영재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p<.01, *p<.05). 모든 상관관계가 정적 선형관계를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도 논리수학지능(.555～.728), 대인관계지능(.572～.707), 개인이해지능(.490～647)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p<.01).

모든 상관관계에서 정적 선형관계가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언어지능(.573～.736), 대인관계지능(.639～.744), 개인이해지능(.605～828)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이숙정(2000)의 아동의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에서 나타난 다중지능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3.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의 설명력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사회적 적응행동의 하위영역에 대한 다중지능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4. Correlation of multiple intelligences and social adaptive behavior of Gifted

	Self efficacy	Social competence	Communication	School adjustability	Interpersonal affinity
Musical	.321**	.530**	.531**	.542**	.544**
Bodily-kinesthetic	.286*	.485**	.430**	.527**	.508**
Logical-Mathematical	.636**	.685**	.652**	.728**	.555**
Spatial	.392**	.583**	.546**	.529**	.504**
Linguistic	.432**	.591**	.567**	.573**	.563**
Interpersonal	.636**	.707**	.700**	.650**	.572**
Intrapersonal	.490**	.647**	.625**	.638**	.550**
Naturalist	.510**	.444**	.502**	.532**	.362**

Table 5. Correlation of multiple intelligences and social adaptive behavior of General

	Self efficacy	Social competence	Communication	School adjustability	Interpersonal affinity
Musical	.510**	.379**	.518**	.441**	.346**
Bodily-kinesthetic	.511**	.497**	.500**	.434**	.376**
Logical-Mathematical	.673**	.629**	.604**	.702**	.480**
Spatial	.631**	.596**	.633**	.583**	.518**
Linguistic	.736**	.642**	.742**	.680**	.573**
Interpersonal	.665**	.744**	.743**	.639**	.682**
Intrapersonal	.828**	.663**	.797**	.742**	.605**
Naturalist	.537**	.395**	.513**	.438**	.389**

(**p<.01, *p<.05)

다중지능의 하위영역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적응행동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독립변수의 추가와 제거를 적절히 조합하여 최선의 회귀식을 도출하는 단계선택법(Stepwise selection method)으로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독립변수들은 통계식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2값은 자유도를 고려하여 모집단의 결정계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수정된 R^2값을 사용하였다.

1)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설명력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영재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39.094, p<.01). R^2의 값이 .518이므로 독립변수인 논리-수학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51.8%의 설명력이 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106.634, p<.01). R^2의 값이 .692이므로 독립변수인 개인이해지능과 언어지능은 자기 효능감에 대해 69.2%의 설명력이 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영재는 논리-수학지능(β=.418)과 대인관계지능(β=.417)이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51.8% 설명력이 있고, 일반학생은 개인이해지능(β=668)과 언어지능(β=.198)이 69.2% 설명력이 있으며, 모두 정적 영향력이 있다.

2)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설명력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영재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60.492, p<.01). R^2의 값이 .62.6이므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은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62.6%의 설명력이 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다.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64.186, p<.01). R^2의 값이 .573이므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은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57.3%의 설명력이 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영재는 대인관계지능(β=.480)과 논리-수학지능(β=.434)이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62.6% 설명력이 있고, 일반학생은 대인관계지능(β=.560)과 개인이해지능(β=.250)이 57.3% 설명력이 있으며, 모두 정적 영향력이 있다.

Table 6. The R^2 of self efficacy on Gifted's multiple intelligences

	B	β	t	p
Logical-Mathematical	.688	.418	4.329	.000**
Intrapersonal	.611	.417	4.314	.000**
R^2=.518, F=39.094**				
Dependent variable : self efficacy				

(**p<.01)

Table 7. The R^2 of self efficacy on General's multiple intelligences

	B	β	*t*	*p*
Interpersonal	.728	.668	6.914	.000**
Linguistic	.222	.198	2.050	.043*
R^2=.692, F=106.634**				
Dependent variable : self efficacy				

(**p<.01, *p<.05)

Table 8. The R^2 of social competence on Gifted's multiple intelligences

	B	β	*t*	*p*
Intrapersonal	.540	.480	5.647	.000**
Logical-Mathematical	.547	.434	5.100	.000**
R^2=.626, F=60.492**				
Dependent variable : Social competence				

(**p<.01)

Table 9. The R^2 of social competence on General's multiple intelligences

	B	β	*t*	*p*
Intrapersonal	.647	.560	5.602	.000**
Interpersonal	.259	.250	2.505	.014*
R^2=.573, F=64.186**				
Dependent variable : Social competence				

(*p<.05, **p<.01)

3)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설명력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영재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52.342, p<.01). R^2의 값이 .591이므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은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59.1%의 설명력이 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다.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101.229, p<.01). R^2의 값이 .681이므로 독립변수인 개인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68.1%의 설명력이 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영재는 대인관계지능(β=.495)과 논리-수학지능(β=.393)이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59.1% 설명력이 있고, 일반학생은 개인이해지능(β=.545)과 대인관계지능(β=.341)이 68.1% 설명력이 있으며, 모두 정적 영향력이 있다.

4)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학교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설명력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영재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학교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58.730, p<.01). R^2의 값이 .619이므로 독립변수인 논리-수학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해 61.9%의 설명력이 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다.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학교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 69.811, p<.01). R^2의 값이 .594이므로 독립변수인 개인이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은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해 59.4%의 설명력이 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영재는 논리-수학지능(β=.533)과 대인관계지능(β=.372)이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해 61.9% 설명력이 있고, 일반학생은 개인이해지능(β=.493)과 논리-수학지능(β=.338)이 59.4% 설명력이 있으며, 모두 정적 영향력이 있다.

5)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대인관계 친화력에 미치는 설명력

Tabl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영재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대인관계 친화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18.991, p<.01). R^2의 값이 .432이므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지능과 논리-수학지능과 음악지능은 대인

Table 10. The R^2 of communication on Gifted's multiple intelligences

	B	β	*t*	*p*
Intrapersonal	.595	.495	5.563	.000**
Logical-Mathematical	.531	.393	4.418	.000**
R^2=.591, F=52.342***				
Dependent variable : Communication				

(**p<.01)

Table 11. The R^2 of communication on General's multiple intelligences

	B	β	*t*	*p*
Interpersonal	.507	.545	6.306	.000**
Intrapersonal	.354	.341	3.944	.000**
R^2=.681, F=101.229**				
Dependent variable : Communication				

(**p<.01)

Table 12. The R^2 of school adjustability on Gifted's multiple intelligences

	B	β	*t*	*p*
Logical-Mathematical	.679	.533	6.212	.000**
Intrapersonal	.421	.372	4.329	.000**
R^2=.619, F=58.730**				
Dependent variable : School adjustability				

(**p<.01)

Table 13. The R^2 of school adjustability on General's multiple intelligences

	B	β	*t*	*p*
Interpersonal	.512	.493	5.060	.000**
Logical-Mathematical	.389	.338	3.468	.001**
R^2=.594, F=69.811**				
Dependent variable : School adjustability				

(**p<.01)

Table 14. The R^2 of interpersonal affinity on Gifted's multiple intelligences

	B	β	*t*	*p*
Intrapersonal	.302	.264	2.221	.030*
Logical-Mathematical	.390	.304	2.841	.006**
Musical	.193	.250	2.200	.031*
R^2=.432, F=18.991**				
Dependent variable : Interpersonal affinity				

(*p<.05, **p<.01)

Table 15. The R^2 of interpersonal affinity on General's multiple intelligences

	B	β	*t*	*p*
Intrapersonal	.605	.517	4.675	.000**
Interpersonal	.234	.224	2.022	.046*
R^2=.477, F=43.879**				
Dependent variable : Interpersonal affinity				

(*p<.05, **p<.01)

관계 친화력에 대해 43.2%의 설명력이 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다.

Tabl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이 대인관계 친화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F=43.879, p<.01). R^2의 값이 .477이므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지능과 개인이해지능은 대인관계 친화력에 대해 47.7%의 설명력이 있으며, 정적 영향력이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영재는 대인관계지능(β=.533)과 논리-수학지능(β=.372)과 음악지능(β=.250)이 대인관계 친화력에 대해 43.2% 설명력이 있고, 일반학생은 대인관계지능(β=.517)과 개인이해지능(β=.224)이 47.7% 설명력이 있으며, 모두 정적 영향력이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등영재 다중지능의 8가지 중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지능은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 음악지능으로 나타났고, 특히 논리-수학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사회적 적응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초등영재는 논리-수학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적 적응행동 역시 일반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학생 다중지능의 8가지 중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지능은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인관계지능과 개인이해 지능이 사회적 적응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현자(2004)의 연구에서 다중지능 중 개인이해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신체-운동지능이 유능감(학업, 또래관계, 자기관리, 자기가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다중지능의 모든 지능이 사회적 적응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초등영재의 경우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 음악지능이 영향을 미치고, 일반학생의 경우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 지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다중지능의 개발은 사회적 적응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영재와 일반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의 집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다중지능이 사회적 적응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지능에서 초등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초등영재의 강점지능은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순으로 나타났다.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고려한 개별학습이나 과제제시가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교육적 성취가 이루어 질 것으로 여겨진다.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사회적 적응행동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역시, 모든 영역에서 초등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자기 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의사소통능력, 학교생활 적응력, 대인관계 친화력 등에서 더 높은 적응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등영재와 일반학생 두 집단 모두 모든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초등영재는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일반학생은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련성을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활용함으로써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사회적 적응행동 발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은 사회적 적응행동에 대하여 설명력이 있는지 검증한 결과, 초등영재는 논리-수학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의사소통능력, 학교생활 적응력, 대인관계 친화력에 모두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경우 개인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대부분의 사회적 적응행동 영역에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리-수학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높은 초등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사회적 적응행동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차이를 보이는 연구문제1의 결과를 잘 설명해주며, 사회적 적응행동에 영향력이 있는 지능의 개발을 통하여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사회 ·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제언

위의 결론에 기초하여 앞으로 이루어 질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표본의 편중성에 따른 제한점이 발생하므로, 수학영재, 과학영재, 발명영재와는 다른 분야의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영역별 영재에 따른 비교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보다 세밀한 영재특성별 사회적 적응행동 발달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다양한 영재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검사만으로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을 측정했기 때문에 상담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한 학생의 심리적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적응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 영재상담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 적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중지능과 사회적 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하위영역 간의 설명력이 있음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후속연구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Kim mi-jin(2004). The relation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s' multiple intelligences with their subject preference and sociability.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Kim Joo-yeon(2009). Multiplex intelligent quality comparison of gifted person and general elementary student.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im Ji-hye(2002).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gifted child.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im Hyon-ja(2004). Multiple intelligences and family variables affecting elementary-school children's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Vol.2 (2), 135-155.

Kim Hyun-jin(1998). A validation study of multiple intelligence measurement.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Ryu Sung-rim(2004). The analysis of multiple intelligences of the gifted children in elementary mathema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Vol.43 No.1, 35-50

Park Seong-ik, Jo Seok-ee, Kim Hong-won, Lee Ji-hyun, Yoon Yeu-hong, Jin Suk-un, Han Ki-soon(2003).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Seoul: Kyoyookbook.

Park Jeong-hee(2002). The influence of parents' home-education direction and rearing behavior upon psycho-social maturity of their children. PhD Thesis, Inha University.

Bae Chi-han, Kang Yun-soo, Shin Hyang-keun(2013). Analysis on Social & Emotional Abilities of Students` of Science Education Center for Gifted Youths. J. of Secondary Institute of Education, Vol.61 No.3, 607-631.

Suh Woo-kyung(2003). The study of the counseling for the gifted children with maladjustment.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Vol.2 No.2, 65-86

Shin Young-mi(2012). The effects of biblio-counseling based on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on self-esteem and soci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Chunch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Yoon Yeu-hong(2000).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ifted children and counseling for emotional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19 No.1, 79-101.
Lee Sook-jeong(2000).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s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e-Jeong kyu, Kim Hyun-chul, Lee Yun-ok(2005).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Gifted: The Gifted in 3 Domains (Literature, science, art). J.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 Vol.19 No.4, 953-971.
Jeon Kyung-won(2004). New gifted / talented education theories and practices. Seoul: Hakmun Publishing, inc.
Davis, G. A., & Rimm, S. B. (2004).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New York: Basic Books.
Oden, M. (1968). The fulfillment of promise: 40-year follow-up of the Terman gifted group.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7, 3-93.
Terman, L. M. (1925). *Genetic studies of genius : Vol. 1.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CA: Stanford University Press.